

안녕하세요, 우간다에서 소식 전합니다.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모든민족 신학교’는 지난 8월 19일 2025/26년도 1학기를 개강하였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선교사님들이 수고해주신 덕분에 이번 학기에는 신입생이 24명 (Certificate 과정 12명, Diploma 과정 12명)이나 왔습니다. 지난 10여 년 새 한 학기 신입생으로는 최고로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영어 과정도 32명이나 와서, 신학과 재학생 28명까지 합쳐, 총 84명이 등록을 하였습니다.

신입생이 많다 보니 예상치 못한 일도 있습니다.

이웃 나라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학생 한 명을 보내셨는데, 이 학생이 한 달 정도를 공부하다 학교에서 사라졌습니다. 알아보니, 선교사에게는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싶다고 말하고, 후원을 받아서 우간다에 와서는, 기회를 보아 도망을 가 버린 것입니다. 우간다가 자기 나라보다 살기가 좋다 보니 돈벌이를 위해 우간다로 가고 싶은데, 갈 차비가 없으니 선교사를 속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선교사님들이 보내준 학생들은, 아무래도 선별해서 보내다 보니, 다른 학생들에 비해 두각을 나타냅니다. 우리 신학교에서 잘 훈련해서 더 수준 높은 공부를 위해 유학을 보내주고 싶을 정도입니다.

반면에 어떤 학생들은 신학교에 오면서 성경책도 가지고 오지 않은 이들도 있고, 학생회 자치회비나 의료비는 고사하고, 교재를 살 돈도 가지고 오지 않은 학생도 있습니다. 그냥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선교사 집에 와서 일하면 시간당 계산해서 현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너무 많은 학생이 오는 바람에, 학생들 일거리를 만드는 게 일이 되어 버릴 지경입니다.

결국, 잠시 중단하고 필요할 때마다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신학교 채플 설교



학생들 아르바이트

윤 선교사는 세 과목 강의, 그룹 성경공부 리더 교육, 매주 한 번 설교 등으로 바쁘고, 조 선교사는 신학교 회계, 선교관 관리, 신학교 방문 손님 접대 등으로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방학 동안 윤 선교사는 ‘지방 목회자 훈련 과정’ 일주일 한 과목 강의하러 다녀왔고, 또 재학생의 초청으로 세미나 강의차 다른 지방에도 다녀 왔습니다.

학생이 초청할 때는 300명 목회자가 모이는 세미나라고 해서 갔는데, 막상 가보니 자기 교회 교인들 4, 50명 정도만 참석하는 교회 부흥회 같은 모임이었습니다. ‘신학교 학장이 말씀 전하러 온다’고 광고를 많이 했는데, 왜 안 오는지 모르겠다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이틀(목, 금) 동안 오후 시간에 마태복음 산상 설교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나니, 초청한 학생이 부탁드립니다. ‘다른 강사가 다른 시간에 집회 인도를 했는데 두 시간 동안 성경 말씀을 한 군데도 읽지 않았다고, 성경 중심으로 말씀을 전해 주는 게 너무 필요하다고, 주일 예배 설교도 해주고 가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틀을 더 머무르고 돌아왔습니다.

좀 더 유명해져야겠다, 성경을 좀 더 열심히 가르쳐야 하겠다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방 목회자 과정



세미나 집회 모습

신학교 운영비가 넉넉지 못하다 보니, 동역하는 선교사님이 신학교 후원자를 모집하는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신학생 학비를 위해 ‘한 달 오만 원’ 후원자 백(100) 명과, 신학교 운영을 위해 ‘한 달 만 원’ 후원자 천(1,000) 명을 모집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동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소식지를 접하는 많은 분들이 “모든민족신학교 학생 학비를 위해 한 달에 오만 원씩 후원하는 사역” (ANTS 한오백 사역)과 “모든민족신학교 운영을 위해 한 달에 만 원씩 후원해주는 사역” (ANTS 한일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신한은행 56100138244970 윤재승)

<<기도제목>>

1.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바로 실천하고, 바로 가르칠 수 있도록
 2. 교육부로부터 신학과 학사 (BA) 과정을 허락받을 수 있도록
 3. 신학교 운영비가 부족함없이 잘 채워질 수 있도록, ‘한오백 사역’과 ‘한일천 사역’에 많은 이들이 동참하도록
 4. 뼈대가 세워진 후 중단된 직원 숙소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5. 신학교 땅 관련 소송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장기간 이어질 소송과 현지인들의 불법적인 행위에도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믿으며 마음 고생하지 않도록
 6.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 기도해주세요.

2025년 9월, 우간다 브웨렝가에서
윤재승 조은숙 드림